

직무수행계획서

대한지질학회 제40대 회장후보로 선정된 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동의함.

2019년 7월 15일

성명 : 정창식 (서명)

존경하는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제40대 대한지질학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창식입니다. 제가 미력이나마 지난 2004-2005년 제32대 임원진의 총무이사, 그리고 이번 제39대 임원진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학회의 빛나는 전통에 면면히 흐르는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학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제37차 IGC 개최 준비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지질학의 시대적, 사회적 위상 제고● 회원 권익 보호와 창출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위의 비전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워 차근차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 제37차 IGC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질학 분야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 IUGS와의 협력 강화 및 IGC 조직위원회 활동 지원

- IUGS 집행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IGC 2024 조직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020년 3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제36차 IGC에 학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2024년 IGC를 홍보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Geology of Korea’ 발간 추진

- IGC에 참가하는 외국 학자들에게 한국 지질에 대한 종합적이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문 책자가 필요합니다.
- ‘Geology of Korea’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출판사 (Springer/Nature 또는 Elsevier 등)를 선정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 대형융합연구주제 도출 지원

- IUGS 및 국내외 IGC 참여 개인/단체와의 협력과 학회의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 행성지질학, 지각시추, 극지과학, 해양지질/지구물리학, 고기후학 등의 Big Science 분야에서 학제간 대형융합연구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1) 디지털 방식의 지질학 정보 활용 강화

- 우리 학회에서는 2017년부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지질학백과’ 표제어 제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형태의 웹기반 홍보가 국민들의 지질학 이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매체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지질 연구 지원

- 남북한 지질연구는 순수한 학문 발전은 물론 통일한국시대의 자연재해 방재와 전략 광물자원 확보 차원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최적 연구주제입니다.
-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행 중인 북한 지질관련 연구가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가 시급함을 정부와 언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3) 사회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지원

- 지진과 쓰나미, 활성단층, 화산, 지질공원(Geopark), 에너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지질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심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현안 문제와 관련해 지질전문가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권익 보호·창출과 지질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 전자 소식지 발간

- GSA의 GSA Today, AGU의 EOS를 벤치마킹한 명품 학회 소식지를 국영문 (대한 지질학회 소식지, GSK Newsletter) 전자 문서로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대내외적으로 지질학 연구 경향 및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 GSK Newsletter는 우리 학회의 국제적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충실한 영문 Annual Report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2)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창출

-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 및 기초과학 관련 타 학회와 연계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정부 부처의 지질분야 연구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자체/중앙정부와 기업의 지질학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 지질학 분야의 학문후속 세대 양성

- 지질관련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회 소식지 취재와 편집 실무를 맡김으로써 학생들의 지질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삼겠습니다.
-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지구과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야외 실습 장소 및 안내책자 개발, 연구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당시 학회장님으로부터 총무이사직 수행을 명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아직 기억합니다. 작년의 경주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업무나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학회 부회장 업무도 제 능력에 많이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은사님,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 여러분의 과분한 아낌과 지원을 바탕으로 학회의 많은 일들을 대과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믿고 감히 회장직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30년 연구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